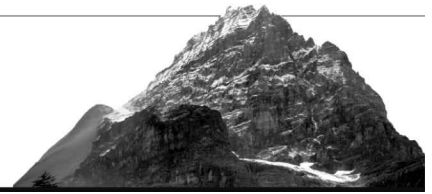


# 믿음에 굳게 서라 STRENGTHENED IN THE FAITH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6-7)



강사 김하나 목사

## 계속해야 할 믿음의 연습

### ‘믿음의 패턴’을 만들라(존 맥아더, *믿음의 증거*, p. 35)

로마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패턴을 세우라고 합니다.(패턴: [명사]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유형) 우리는 세상의 패턴(롬 12:2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이 아니라 믿음의 패턴을 본받아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도 흥미롭고, 마윈(Jack Ma)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패턴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기분 내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음의 패턴(반복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는(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단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패턴, 즉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며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모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단 한 번의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켜내는 믿음, 견뎌내는 믿음,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견고한 믿음이며,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의 패턴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 1. 결정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사람입니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이런 결정의 믿음의 패턴은 그가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좋은 것을 좇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좇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창 13:8-9**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의 산으로 올라갈 때도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창 22:7-8**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의 결정은 좋은 곳, 나쁜 곳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결정의 믿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며, 순간적으로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딤후 2:6**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열심히 탁구 연습을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빠른 공을 받아칠 때 그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한 연습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의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삼상 24:10**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와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 2. 예배의 믿음

아브라함의 패턴 중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처음 가나안에 도착하여 세겜에 이르렀을 때 모레 상수리나무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벰엘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창 12:6-8). 조카 롯과 헤어져서 험한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창 13: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모리아 땅의 산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창 22장).

아브라함의 제단은 각각 다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한결같은 예배였습니다. 개척지에서의 예배와 불확실성 속에서의 예배, 그리고 헤어짐과 어려움 속에서의 예배, 더 나아가 가장 극한 상황에서의 예배까지 한결같은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패턴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패턴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 내려간 길은 후에 족장으로 불립니다.(세겜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나 이 길은 단지 족장들이 걸었던 길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길을 그 후손들이 따라간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길을 걸을 때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 길을 세월이 지난 후에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대단한 길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길, 바로 예배의 길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 3. 변함없는 믿음

아브라함이 다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도 큰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까?

**히 3: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견고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입니다. 첫째 날에도 언급했지만, 제주 경기에서는 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통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잘 뛰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바통과 같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유혹과 환난이 와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기에 빠뜨리는 사람, 전철 선로에 떨어뜨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떨어뜨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이 소중한 믿음의 바통을 끝까지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패턴을 세워가는 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 계속해서

믿음의 패턴의 또 다른 표현은 ‘지속적인 믿음’, ‘끈질긴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 우리 번역에는 나오지 않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continue)입니다(골 2:6 So then,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CONTINUE* to live in him, NIV 그 안에서 행하되 →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되). 단단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한순간의 노력과 한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사건은 반드시 계속되는 믿음의 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후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실망을 주는 이유가 바로 ‘계속’의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바울의 훌륭한 파트너였지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데마는 바울과 동역하고 있었습니다(골 4:14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나 디모데후서를 쓸 때 데마는 이미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딤후 4: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견고한 믿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저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앙에서 계속되지 않는 것들은 실제로는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주일을 지켰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매일같이, 아니 더 나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항상)’이라는 부분은 초대 교회에서 매우 강조된 신앙의 훈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눅 21: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신약의 서신서에는 ‘항상’, ‘계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 4: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딤후 4: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계속’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단순한 시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 두기만 해도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보이차(puer tea) 중에는 양질의 차잎을 숙성시킨 뒤에 오래 보관한 차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래 둔다고 해서 가치가 한없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과 연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가 깊을 수 있지만, 오래된 나무가 다 견고한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계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인내(perseverance)를 의미합니다. 끈질김(resilience)과 의지(will)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 싸움(spiritual battle)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짧은 권고의 말씀 속에서 뿌리가 깊은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계속되는 행함 속에서 견고해지며 또한 성장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Love is an action, never simply a feeling.”(Bell Hooks) “사랑은 행함입니다. 결코 느낌만이 아닙니다.”(벨 훅스) 행함이 없이 느낌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덧없는 세상의 일과 지속적으로 바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차 믿음은 희미해지고 어느덧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믿음의 훈련을 쌓아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삶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믿음의 훈련들은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예배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뿌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려질 것을 믿습니다.